

■ 복숭아

앵두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 또는 소교목으로 키는 3m 가량이다. 중국이 원산지로, 촌락 부근에 심는데 아시아와 유럽에 분포되어 정원수로도 심으며 씨는 약용한다. 중요한 식용과 일이며, 일월도(日月桃), 수밀도(水蜜桃), 전십랑(傳十郎) 등 품종이 많다.

① **계속되는 부인의 오색대하(5色帶下)** : 껍질있는 복숭아 씨를 숯불에 태워 가루를 내어 따뜻한 물이나 술에 타서 하루에 3회, 식간마다 복용한다. 한번에 8g 정도이고, 이 처방은 월경이 멎지 않을 경우에도 좋다.

② **산후나 임신 중의 음부 가려움증** : 복숭아씨를 많이 찧어 참기름에 개어서 탈지면에 얇게 묻힌 다음 음부 속으로 삽입시켜 놓고 주야로 교환해 준다.

③ **비듬 제거** : 복숭아 꽃 봉오리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린 것과 빨간 오디 말린 것을 반반씩 섞어 돼지 기름에 개어 바른다. 또 따뜻한 술로 하루에 한두번 복용하면 더욱 효과를 얻게 되는데, 이 경우에는 하루 5g 정도 복용한다.

④ **치질** : 복숭아 가지를 삶아 그 물로 자주 씻는다.

⑤ **치통에 의해 불이 부었을 때** : 복숭아나무·뽕나무·버드나무의 백피(白皮)를 같은 비율로 넣어 삶은 다음, 여기에 약간의 술을 타서 몇 차례 양치질을 함과 동시에 이 약물을 부어있는 부위에 자주 바른다.

⑥ **광견에 물렸을 때** : 복숭

아 나무의 백피를 찧어 상처에 바르고, 백피 삶은 물을 마신다.

⑦ **버짐** : 잎으로 즙을 내어 바르든지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식초에 개어서 발라준다.

⑧ **입술이 마르고 갈라질 때** : 복숭아씨를 가루내어 돼지기름에 개어서 바른다.

⑨ **남자의 음경이 붓고 아프거나 가려울 때** : 껍질이 있는 복숭아씨를 노랗게 볶아 참기름에 개어서 부위에 발라준다. 습진에는 가루를 그대로 바른다.

⑩ **위경련 또는 갑자기 가슴이 아플 경우** : 껍질 벗긴 복숭아씨 40g을 찧어서 쌀을 넣고 묽은 죽을 쑤어 먹는다.

⑪ **발의 증기** : 복숭아 꽃이나 잎을 채취하여 소금을 약간 넣고 찧은 다음, 식초를 몇 방울 타서 바른다.

⑫ **코 안이 헐어서 아플 때** : 복숭아 잎을 찧어 대추알 정도로 해서 코에 넣는다.

⑬ **대소변의 불통** : 복숭아 잎으로 즙을 만들어 하루 3회 반잔씩 복용한다. 동절기에는 껍질을 삶아 그 국물을 복용한다.

■ 뽕나무·오디

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으로 키는 3~4m 가량 된다. 잎이 어긋나게 나며 끝이 뾰족하고 잎가엔 톱니가 있다. 암수 한그루로 4월에 잎과 함께 엷은 황록색의 단성화(單性花)가 이삭 모양으로 잎 겨드랑이에 핀다.

열매는 오디라 하는데 가름하고 도톨도톨하며, 익으면 검은 자

주빛이 되어 맛이 달콤하다. 뽕(桑)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.

① **소아의 단독(丹毒)점(물에 난 붉은 점)** : 뽕나무의 백피(白皮) 1근을 물 1되에 삶아 물이 반으로 줄면 그 물을 자주 먹인다.

② **대머리의 예방과 치료** : 오디의 즙을 내어 자주 바른다.

③ **각종 피부병** : 서리가 내린 후의 뽕잎 1근에다 썩임 1/4을 섞어 삶고, 그 물에 전신을 담그고 목욕한다.

④ **산후의 하혈** : 뽕나무 껍질 75g을 노랗게 볶아서 삶고, 이 물을 매일 차 마시듯 복용한다.

⑤ **무좀** : 뽕잎 말린 것 8g을 2되의 물로 삶아 물이 3사발 정도가 되게 하여 하루 3회 복용하고 나머지 물로는 발을 씻는다. 물을 따뜻하게 해서 쓴다.

⑥ **몸이 붓고 소변이 통하지 않을 때** : 뽕나무가지 1근을 채취하여 팔 1되와 같이 7되의 물에 넣고 삶는다. 물이 3되 정도가 되면 퍼내서 자주 마신다.

⑦ **변비** : 오디 말린 것 100g(신선한 것은 40개)을 삶아 놓고 열매와 국물을 조석으로 복용한다. 장기 복용하면 목은 변비증에도 효과가 있다.

⑧ **어린이의 몸에서 열이 날 때** : 싱싱한 뽕잎과 오디 및 뽕나무 껍질을 2~3근 채취하여 많은 물을 부어 삶아서 이 물을 몇 차례 먹인다. 이 처방은 대변이 굳고 소변이 노란 경우와 불변증 등에도 잘 듣는다. 72

〈자료 : 백만인의 의서 '가정 한방 동의보감' (국일문화사)〉